



겨울의 진객(珍客) 저어새 17일 제주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찾은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 멸종위기종 1급)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4·15 총선 D-180 ... 정치권 총성없는 전쟁 본격화

제주정가·여야 후보군 고지점령 '정중동'

제2공항 등 현안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 빠른 행보
3개 선거구별 여당 수성·야당 탈환 대결구도 형성
민주당 예선 불꽃대결 예고 속 최중대항마 관심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8일로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정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제2공항 등 준비한 현안으로 선거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야 정당은 물론 예비주자들의 행보는 눈에 띄게 빨라지

고 있는 양상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여야 정당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8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주요 선거사무일정이 본격화되며 사실상 총선 레이스가 펼쳐진다.

제주자치도선관위의 선거 준비와는 별개로 각 정당과 후보진영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수성을 노리고 있는 현역과 이에 맞서려는 예비주자들이 각종 행사장을 누비며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3석을 석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3명을 비롯해 예선전(?)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이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구별로 각종 행사장에는 현역과 이에 맞서는 예비주자들이 조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

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17대 이후 이어져온 석권 전통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경선을 통한 민주당의 공천결과에 의해 대결구도는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대결구도를 점치기 힘들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통합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당제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계개편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한 여론의 추이도 감안해야 하는 형국 이어서 선불리 대결구도를 점치기 어렵다는 게 도내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3개 선거구에 나설 예비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은 변함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역은 현역대로 의정활동을 통해 재신임을 묻는 전략이며, 대항마들은 도전의 기회 확보 또는 탈환의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3개 선거구의 대결구도는 다자구도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갑 선거구인 경우 민주당은 현역을 포함해 전현직 도의원들이 가세하며 불꽃튀는 예선전을 예고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보수 및 진보 진영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진출치고 있다.

제주시를 역시 현역의 아성에 도전하는 당내 세력과 함께 야권에서는 내년을 기약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서귀포 선거구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재선가도를 노리고 있는 상태에 보수진영의 단일대오를 통한 1:1 맞대결을 기대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 행정사무 감사 제2공항 도민공론화 입장차 재확인

향평기 소속 의원들 찬반 설전
공유재산관리 문제 등도 '도마'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공론화를 둘러싼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지는 등 확연히 엇갈린 입장차가 드러났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공황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행감에서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공론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행감 첫날인 지난 16일 공론화를 두고 박원철 위원장과 안창남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으며 이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들의 목소리는 다소 차분했지만 찬반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

향평기 초안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하늘길 확대를 우선 해결하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추진과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의회 만능주의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왜 있다. 국책사업이 안 되면 우리 의회는 환경부가 제시한 것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내거나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원철 위원장은 "청원은 속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따른 청원이 아니고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직접 공론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정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행차위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은 이날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심각한 규정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오은지기자

알림

2019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 공모전 수상자

<p>▶ 대상 개인 : 김도연(제주중앙여고 1) 팀 : 정하늘·홍리우(애월초 1)</p> <p>▶ 금상 오지현(제주여상 3) 고예진(신성여중 3) 오지민(애월초 6) 오승민(애월초 4)</p> <p>▶ 은상 김소형(제주여고 1) 송민기(제주중앙중 2) 김재연(신광초 3) 천예리(애월초 6)</p> <p>▶ 동상 이민지(남녕고 1) 정윤지(신성여고 2) 서지영(한림고 1) 이지수(NLS 8) 오호원(제주중앙중 2) 송연지(제주중앙여중 3) 정지우(한라초 2) 송지나(한라초 4) 공다빈(애월초 3) 공다빈(애월초 5) 진승리(한라초 2)</p>	<p>▶ 최우수상(팀) ▷ 김해민(하귀일초 5) 이지율(어도초 5) 임가은(정전초 5) ▷ 박혜준(수원초 6) 이은우(애월초 6) 이은찬(홍소쿨) ▷ 김빛나 조하은(제주교대부설초 6) 이효민(제주동초 6) ▷ 김상아(애월중 1) 이상윤(신암중 1) ▷ 남한대표 중학생팀 ▷ 위미초등학교 NIE활동반</p> <p>▶ 우수상(팀) ▷ 김다연 김민선(제주동초 5) 최규리(제주교대부설초 5) ▷ 배보윤 고은별 양수원(표선초 5) ▷ 조윤 김리우(한라초 3) 이안나(백목초 3) ▷ 제주여자고등학교 동아리 '제3의 눈'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UNIE ▷ 제주서중학교 동아리</p> <p>▶ 지도자상 남송희</p>
---	---

※ 시상식 : 10월 26일(토) 오전 11시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한리일보 · JDC

축

CONGRATULATIONS

수 상



양 정 기
(돈사돈 대표)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바텐더닷컴 이진수